

■ 유럽 배터리 기업 Northvolt 파산보호 신청으로 유럽 전기차 공급망 구축에 대한 의구심

-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스웨덴 기업 Northvolt가 미국에서 파산보호(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)를 신청했다고 발표하였음(2024.11.21.).¹⁾
 - Northvolt는 3,0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부채는 약 58억 달러에 달한다고 파산보호 신청 서류에 기재하였는데, 해당 현금으로는 운영 가능한 기간은 약 1주일에 불과함.
 - 전 세계 7개 국가에서 약 6,6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Northvolt는 2025년 1분기까지 구조조정이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며, 파산보호 기간에도 기업 운영을 평시와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.
 - Northvolt는 파산보호 과정의 일부로 자사의 고객 중 하나인 스웨덴 트럭 제조사 Scania로부터 1억 4,500만 달러의 현금과 1억 달러의 신규 금융을 제공받을 예정임.²⁾
 -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Northvolt의 독일과 캐나다의 현지법인은 평시와 같이 계속 운영될 예정임.
 - 유럽에서 Northvolt는 중국 배터리 제조기업 CATL, BYD 등에 대항하며 유럽 자동차 제조 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져 왔음.³⁾
 - 그러나 전기차 수요가 침체되고 아시아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짐에 따라 생산 차질, 주요 고객사 손실,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Northvolt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Vargas는 이번 파산보호 과정을 거쳐 Northvolt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성능 배터리 제조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.
 - 또한 Northvolt의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Tom Johnstone도 이번 파산보호 과정을 통해 유럽 내 배터리 생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자사의 목표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.⁴⁾
-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Northvolt가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EU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음.⁵⁾
 - 2017년, EU는 역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, Northvolt는 그 중심에 있었음.
 - 국가 간 배터리 프로젝트 및 연구·개발 지원에 60억 유로 이상의 EU 예산을 지원한 이후,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EU의 비중은 기존 3%에서 2023년 17%로 증가했으며, 같은 해 연간 수익은 810억 유로에 달하였음.
 -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중국 CATL와 BYD 및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On이

1) Reuters, 2021.11.22.

2) Financial Times, 2024.11.22.

3) Reuters, 2021.11.22.

4) Financial Times, 2024.11.22.

5) Financial Times, 2024.11.25.

세계 시장의 70%를 점유하고 있음.

- 유럽에서 추진되는 30GW 규모의 프로젝트 중 다수는 중국 및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설계되었음.
- Northvolt 관계자들은 유럽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소재의 대중국과 아시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.
- 프랑스 Verkor, Volkswagen의 배터리 사업 부분인 PowerCo 등 다른 신생기업들이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, 이들의 실적은 악화되고, 자금 조달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음.
- 독일 Salzgitter에 당초 2개 생산라인 건설을 계획했던 PowerCo는 시장 수요 둔화로 인해 현재 1개 라인 구축을 고려하고 있음.
- Verkor는 최근 프랑스 Dunkirk에 제조설비 구축을 위해 13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으나, Benoit Lemaignan Verkor CEO는 Northvolt의 파산 및 세계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로 인해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음.
- 또한 Northvolt 파산에 따른 위협을 우려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아시아 배터리 기업으로 또다시 눈길을 돌림에 따라, 아시아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짐.